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879
----------	------

발의연월일 : 2024. 8. 16.

발 의 자 : 강경숙 · 김용민 · 김준형
조 국 · 오세희 · 이수진
임미애 · 이해민 · 서왕진
황운하 · 김선민 · 박은정
차규근 · 김재원 · 장종태
신장식 · 정춘생 의원
(17인)

주 문

2020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일본군이 전시에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아리’라는 이름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다.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상징물로 한·일 차원을 넘어 여성 인권의 보편적 문제로 함께 기억해야 함을 확인시켰다.

그런데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가 지속되어 왔고, 최근 미테구는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 코리아협의회 대표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각종 외교적 압력과 로비를 벌여온 반면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독일 카셀주립대학에 세워진 소녀상 ‘누진’도 일본 정부의 압박 끝에 2023년 3월 기습적으로 철거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존재 부정 및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깊은 반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존치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건립 방해 및 철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의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음. 이는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상징물임.

그런데 소녀상이 설치된 곳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지우기 위한 일본 정부 측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 소녀상이 많음. 최근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서도 2020년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할 것을 통보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를 요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또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존재 부정 및 소녀상 철거를 위한 외교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함.